

신도조직 결성 "늦출 수 없다"

신행단체 화합 우선... 재가 등 여론수렴해야

조계종 총무원 실무기획단 한시운영

조계종 총무원이 새로운 신도 대표기구로 중앙신도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재가단체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총무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가불자 개혁 차원으로 중앙신도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도법에 의거해 6월경 중앙신도회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무원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포교원 기획실 총무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결성, 중앙신도회 창립까지 한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총무원의 중앙신도회 결성에 대해 전국신도회, 재가연합 등의 재가단체들은

신도회와 기존의 전국신도회로 양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무성하다. 특히 시·도별 지역신도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전신회는 30여년의 역사와 조계종 대표 신도기구의 정통성을 갖고있어 총무원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연합 관계자들도 "총무원측에 중앙신도회 결성에 따른 재가불자들의 뜻을 전달했다"며 "재가불자들의 여론이 무시된 채 총무원이 독자적

포교사 4백명 배출

동대불교대학원 연수 후 시험거처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목정배)은 5월27일부터 28일까지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동대 불교대학원 수료생 4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해 포교사증을 발급한다.

포교사 연수교육 일정은 27일 '세계불교의 현황과 21세기의 전망' 이기영교수 '불교사회 복지사업의 실태와 문제' 손준규교수 '한국불교의 법맥' 윤정관교수의 강연과 28일 '미래불교의 포교' 목정배교수의 강의로 실시된다.

교계 장애인 행사 잇따라

조계종 22일 자선 큰잔치... 관심 지속돼야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단, 신행단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2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장애인 자선 큰잔치를 조계사 앞마당에서 펼친다.

수용시설 장애인 초청으로 열리는 자선큰잔치는 법회, 성금전달, 공연으로 진행된다. 부친 석왕사 법회(회장 김용수)도 지난 16일 파주 공릉 유원지에서 '제3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날' 행사를 가졌다. 부친지역 택시운전 불자들의 모임인 범륜회는 이날 휠체어 및 뇌성마비 장애인 40여명을 초청, 야외놀이를 했다.

이밖에도 연화복지학원등 교계 장애인 단체도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와 आय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

열차사고 유족 위로
화순사암연 위령제 계획

전남 화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산스님) 소속 스님 10여명이 지난 11일 화순 열차터 버스 충돌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족들을 방문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화순사암연 스님들은 사고 직후 현장을 둘러보고 사망자들이 안치돼 있는 전방대, 조선대, 보훈병원을 차례로 방문 사망자들을 위한 독경과 영가 축원을 실시했다.

정타스님(화순사암연 총무)은 "지역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것은 불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유족들과 상의한 후 합동위령제를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마을 창립식



외국인 노동자마을 창립식. 왼쪽부터 정수남(구룡사 주지)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영탑공원 준공법회

제주 한마음선원 23일
제주 한마음선원(지원장 해모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선원에서 영탑공원 준공식

60억 투입 등산로 유적 정비

문화재관리국 서울근교 중흥사지등 36건 훼손 밝혀

문화재관리국은 올해부터 99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입,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관악산 남한산성 등 서울 근교의 5개명산 등산로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20개 주요 등산로변에 있는 사찰, 석물(石物), 옛건물터, 성곽, 독립운동가 묘소 등 62개 문화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북한산의 중흥사지(重興寺址·지방기념물 136호), 화계사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65호), 도봉산의 천축사부도 등 36건의 문화유적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손쉽게 훼손되어 있고 건물지의 유구(遺構)인 주춧돌과 기단석 등이 흐트러져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북한산 상운사, 관

신행단체가 화합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조직의 신도단체를 결성해야한다는 것이 불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전신협 조직 정비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조단협 산하 범종단 '전국 불교신도단체 협의회'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갖고 신도 대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했다.

전신협은 이날 공식적인 회장단에 김용직(관음종 신도회, 인터뷰 4면)대표회장과 김철회(태고종 신도회)회장을 선출, 2년내에 불교회관 설립, 전국 신도단체조직, 신도배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신협은 명실상부한 신도 대표기구를 거듭나기 위해 중앙위원회도 신설, 전국 신도단체를 하나로 규합할 예정이다. 한편 전신협은 6월 8일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준엽 기자)

청년보살대 육보시

대불련 포교사업 일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상인)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5일 외국인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청년보살대 육보시'를 거행한다.

청년보살대 육보시란 대불련 회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돕는 대불련 포교사업의 하나다.

대불련이 내달 5일 거행하는 육보시에는 대불련 회원 30여명이 동참, 불자기업체 등에서 수익금 확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펼친다.

생활안복발표회

여불련 13일 동방프라자

정신대위령탑 건립기금마련 '생활안복발표회'가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의 주



여불련이 주최한 생활안복발표회.

최로 지난 13일 오후2시 동방프라자 지하본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주부불자 30여명이 모델로 등장, 50여명의 생활안복을 선보였다.

외국인 노동자마을 문열어

인권보호·법률상담·의료알선등 전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불교인들이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마을'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각불련을 비롯한 승·재가자들이 대거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마을(운영위원장 김동훈)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조계사 총무원 1층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동문제 해결과 법률상담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주력하게 될 노동자마을은 의료기관 알선, 범죄장소와 합터제공, 한글 및 한국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동훈 운영위원장은 창립취지 설명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불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법률과 제도 마련 등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된 '외국인 노동자마을'에는 불교지원봉사회, 전승련, 정토포교원, 무애원, 군포 광명원 등이 후원단체로 참여했으며 스님과 재가불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부친 석왕사(주지 영달스님)는 지난달 31일 '부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개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합터제공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전국 강주·교육관계자 연석회의

조계종 교육원 오는 25일 개최

조계종교육원(원장 일산스님)은 지난1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원 회의를 갖고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를 오는 25일 오전11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학연구소 주최로 한국사상사 및 교육

관계를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매주 정차 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방승가대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기 위해 설문조사를 추후 실시하기로 하고, 사립과 아합경을 (제)연집하고 번역해 주를 달아 교재를 만들기로 했다.

턱낙한 스님 행선수련회

22-23일 청주 공림사에서

불교지도자 턱낙한 스님이 지도하는 행선(行禪)수련회가 22-23일 양일간 충북 청주 공림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선수련회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턱낙한 스님이 직접 수련을

지도한다. 행선으로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턱낙한 스님은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깨어있는 성실한 길을 걷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행선수련회 참석을 원하는 이는 22일 오후5시까지 공림사에 도착하면 된다. 동참금 5만원. (02)277-2676

관람료 1% 연구비 활용

국립공인 및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려 관람료 사찰의 관람수익금 1%를 대책위원회 사업추진 연구조사비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관람료 인상 자율화에 따른 인상율은 국민의 정서에 맞는 선에서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내부적으로 설의 결정기구를 설치키로 결의했다.

베트남 불교지도자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 13일 서무요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한국방문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인권탄압국가인 베트남의 경제지원 반대와 후연 공스님(베트남 종정)등 불교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일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당 장기수용자들의 석방을 공개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비정당 장기수용을 고항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불자회 창립

경향신문 직원들로 구성된 경향신문 불자회가 창립됐다. 경향신문에 근무하는 불자 47명은 지난 16일 서울 북한산 노적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금용단 불교합동법회

제13회 금용단 불교합동법회가 22일 오후4시30분 서울 신덕은행 본점 강당에서 봉행된다.

매년 봄, 가을에 실시되는 금용단 불교합동법회는 서울 소재 13개 금용단과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여주불교사암연 창립

여주불교사암연합회가 창립된다. 여주지역 37개 사암과 신행단체들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여주 군민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이날 법회에는 순현실(명불사 주지)스님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한다.

마·창 불교연 봉축행사 다채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한지안)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여차례의 봉축기념행사를 봉행한다.

23일 시민 탐들이 법회를 시작으로 기념행사의 막을 여는 연합회는 30일에는 경남도 단위 행사로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는 이날 연합봉축 대법회를 개최하며 경로잔치, 소년소녀가장 방문, 불교어린이 백일장 및 사생대회, 교통안전기원 염주달아주기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봉 축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념 금강경 특별제작

불자들에게 한정 수량 특별 보급합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 경판데두리에 부처님 천부님 일체 조각이므로 조심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판규격 : 505 x 255 x 8 (mm) · 재질 :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W 480,000

전면 원력은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 하였습니다.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 높이 : 5자 8치(175.8cm)

· 폭 : 14자 5치(439.5cm)

· 재질 : 스키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수지

· 포교가격 W 490,000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포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